

[인도남아시아 비즈니스 정보]

방글라데시, 중산층 성장으로 해외 식품 수요 증가



방글라데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며 외국 식품의 주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로 수입식품 소비 가능 계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수입식품 업계 관계자들은 중산층의 확대에 따라 해당 시장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식품산업의 성장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GDP 7% 성장세 유지 中

방글라데시가 해외 식품 수출에 대한 새로운 잠재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꾸준한 경제성장과 이에 따라 수입 식품을 소비하는 중산층의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제지표 정보 제공 전문 사이트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Trading Economics)의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5.05%에서 6%대를 유지하다가 2017년 7.3%를 기록했다. 또한, 방글라데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GDP는 7.86%를 기록하며 7%의 GDP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제성장률 역시 7%대로 전망되고 있는 한편, 해외 식품 수입업자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로 해당 시장 및 산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체감한다고 전했다.

〈연도별 GDP 성장률 변동 추이〉



(출처: Trading Economics)

방글라데시에서 20년 이상 식품 수입을 해오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중산층이 해외 식품의 잠재적 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고 언급하며 “주로 수도인 다카(Dhaka)에 위치한 호텔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수입식품을 납품하고 있다” 고 전했다. 카페, 호텔 등에 수입식품을 납품하고 있는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아직 해외 식품 수요의 시장 규모와 성장률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지만 경제성장과 함께 시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외 식품 소비와 관련하여 중산층이 높은 시장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와 시장 확대에 따른 다른 산업과의 협업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식품-호텔산업 서비스 연계로 비즈니스 확대 기대

한편, 해외 식품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호텔산업 관계자들 역시 해외 식품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 예로,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된 식품 및 관광 산업 박람회(Food and Hospitality Fair)에 방글라데시 중산층들의 주요 거주지로 꼽히는 다카 지역 내 호텔들이 참석해 해외 식품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방글라데시 인터내셔널 호텔 협회(Bangladesh International Hotel Association)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수의 식품 및 호텔 서비스 업체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향후 식품 수입업체와 호텔 연계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 창출이 기대된다.

자료정리: EMERiCs, 자료감수: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출처

- The Daily Star, Bangladesh a potential market for foreign foods, 2019.02.17
- The World News, Bangladesh a potential market for foreign foods, 2019.02.17
- The Financial Express, Middle-income population : Slowly running out of puff, 2018.10.10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Gross Domestic Product (GDP) of Bangladesh (Final) 2017-18, 2018.09.18
- Trading Economics, Bangladesh GDP Annual Growth Rate